

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I. 개 요

1. 일시: 2014년 6월 19일 (07:30~09:30)

2. 장소: 서울팔레스 호텔

3. 발표자: 이충열 (고려대학교, 교수)

4. 참석자(내부: 5명) : 이권형(아중동팀, 연구위원)
권태균(국제거시팀, 초청연구위원)
윤서영(아중동팀, 전문연구원)
손성현(아중동팀, 연구원)
박재은(아중동팀, 연구원)

(외부: 13명): 김영기(한국수출입은행, 실장)
김상진(한국무역보험공사, 부장)
김중관(동국대학교, 교수)
박창주(법무법인 양현, 변호사)
소재필(국방부, 법무관)
이정하(아주경제신문, 기자)
이충열(고려대학교, 교수)
장용재(법무법인 광장, 변호사)
장철복(SC은행, 상무)
정영주(법무법인 가을, 변호사)
정영천(한양대학교, 교수)
최원근(하나금융경영연구소, 연구위원)
홍성민(한국외국어대학교, 교수)

5. 발제 제목

- Landscape of Financial Markets in MENA Region

II. 주요 논의 사항

- 중동의 거시경제 환경을 살펴보고,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, 금융 기관의 수익성, 효율성, 등에 대해 분석함.

1) 발제 내용

- ☐ MENA 지역의 산유국을 제외한 1인당 GDP 규모는 다른 지역보다 낮음.
- MENA 지역의 PPP 기준 1인당 평균 소득은 2015년에 11,390 달러, 2019년에는 13,564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MENA 지역의 소득 증가율에 대한 전망은 동부 유럽, 체제 변환국, 남미와 같은 지역보다도 낮은 것임.
- MENA 지역에서도 카타르는 10만 달러, 쿠웨이트, UAE, 사우디아라비아는 2만~4만 달러 사이로, GCC 산유국의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반면 레반트 지역 및 북아프리카 비산유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역내에서도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남.
-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1인당 GDP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,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대적으로 소득 변동 폭은 크고, 장기 성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.
-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유가변동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변동 폭이 크고 지나치게 석유 의존적 산업구조를 가진 데서 기인한 것임.

- 현재 MENA 지역의 GDP 성장률 또한 개발도상국 중 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지역보다 높지 않고, 향후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움.
 - MENA 지역에서도 카타르만이 10%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, 대부분의 다른 MENA 국가들이 6% 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.
 - 특히 전쟁 혹은 분쟁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는 더욱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국가별로는 대부분 2%-5%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MENA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GDP 대비 투자 비중, 서비스 및 제조업 비중이 낮으나 교육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MENA 국가 중 향후 5년간 GDP 대비 투자 비중이 30%를 넘는 국가는 알제리, 이란, 모로코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 등에 불과하며, 이집트, 요르단, 튀니지, UAE 등은 20%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.
 - 이집트, 요르단 등 비산유국의 제조업 비율은 20% 미만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임.
 - 국가별 인구에서 이집트와 이란이 7천만 이상이고, 알제리, 이라크, 모로코, 사우디아라비아, 수단, 예멘 등이 2천만-3.5천만 정도의 중규모 국가이고 나머지는 천만 미만임.
 - 성인 문자해독율은 일부 국가만이 80% 미만이고, 중등교육 수준이 대부분 100%에 육박하여 MENA 지역 젊은이들의 인력은 대체로 우수할 것으로 평가됨.
- MENA 지역의 은행 규모는 작고 효율성은 낮은 반면, 은행의 수익성 및 접근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GDP에서 은행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레바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% 이하로 은행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.
 - 특히 UAE, 사우디아라비아, 카타르, 오만, 쿠웨이트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GCC 국가의 은행 자산 비중도 대부분 80% 이하임.
 - 은행 효율성을 보여주는 은행 대출 대비 예금 비율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,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니지는 120%를 상회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.
 - 반면 은행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ROA 및 ROE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이것은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가운데 부실여신이 많지 않고 은행영업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.
 - 은행 접근성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양호하나, ATM의 설치는 매우 늦어 전자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☐ 은행을 제외한 주식, 보험, 금융 시장 발전 정도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됨.
- 주식시장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주식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은 요르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임.
 - 전체 금융자산/GDP 비율은 요르단, 이스라엘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.
 - 또한 MENA 지역의 보험 침투율(보험료/GDP 비율)은 모두 6% 미만으로 한국(11.6%)에 비하여 크게 낮음.

- 전반적으로 MENA 지역 국가들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는 소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평가됨.

2) 토론 내용

- (이권형 연구위원 코멘트) 금융 통계를 통해 MENA 지역의 금융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, 이것의 원인을 산업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음.

- 금융 산업은 독자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다른 산업을 토대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임.
- GCC의 산유국을 비롯한 MENA 지역 비석유 부문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은행 및 금융 산업의 발전 정도도 낮은 것으로 생각됨.
-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중동의 금융 시장을 바라본다면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.

- (홍성민 교수 코멘트) GCC 국가를 중심으로 오일 머니 대부분이 부동산 및 해외 금융 투자로 이어진 것이 MENA 지역 금융 저발달을 초래함.

- GCC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로 막대한 석유 수출을 통해 달러를 획득하였으며, 이 자금을 주로 부동산 및 해외 금융 상품에 투자하였음.
- 제조업, 서비스업 등 비석유 부문의 저발달 및 넘쳐나는 달러 자금의 영향으로 금융 인프라의 발달 수요가 낮았음.
- 보험시장의 저발달은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이

슬람의 영향에 기인함.

- 반면 레바논은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시스템을 받아드려서 일찍이 금융시장이 발달하였음.

□ (권태균 초청연구위원 코멘트) 중동의 높은 발전 가능성, 소매시장의 확대, GCC를 중심으로 발달된 금융시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임.

- 중동은 제도의 발전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경제의 발전이 제도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는 케이스임.
- 그러나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 각종 제도 및 체제의 발전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.
- GCC를 비롯한 중동국가 대부분은 역사가 길지 않으나, 그동안 미래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국가 시스템 및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지금의 수준을 단기간에 이룬 것임.
- 그러한 면에서 중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.
- 중동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 MENA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, 많은 차이가 발생함. 석유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음.
- 중동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있으며, 최근에는 소득의 증가로 소비시장도 유망한 것으로 나타남.
- 반면 우리나라는 MENA 지역의 석유 및 플랜트 부문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음.
- 금융 분야는 지표상으로 은행의 효율성, 발전 정도는 낮게 나타남.

- 그러나 GCC 국가만 보았을 때, 일찍부터 영국 및 미국의 은행이 진출해 있으며, 막대한 석유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업 금융 및 투자 영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있음.

- 금융 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.

□ (장철복 상무 코멘트) 중동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경우 앞으로 더욱 큰 기회가 우리나라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.

-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6개 국가 중 3개 국가가 MENA 지역에 있음.

- 그러나 최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, 이러한 부분이 해결된다면, 금융 시장도 더욱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.

- 일례로 미얀마가 미국의 경제제재로부터 해제되었을 때 지금처럼 높은 성장을 거둘 수 있었음.

□ (김상진 부장 코멘트) 국영기업 위주의 경제 환경과 이미 현지에서 높은 영업력을 보이고 있는 외국 은행 사이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.

- GCC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영기업 및 국가 자본을 근간으로 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.

-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빅, 아람코가 있고, UAE는 ADNOC 등의 국영기업 및 은행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음.

- 중동에 있는 은행은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- HSBC나 스탠다드차타드 등과 같은 은행이 대표적인 소매금융이며, 우리나라도 기업 금융을 위한 지점이 진출하고 있음.

- MENA 지역에 소매 금융보다는 기업금융이 유망함.
-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지에 진출한다면, 이미 진출한 다양한 글로벌 은행과 현지 정부가 소유한 지역 금융기관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.

□ (정영천 교수 코멘트) 중동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연구 확대가 제도 및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.

-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슬람 금융 및 중동의 은행에 관한 논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음.
-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슬람 금융이 전통 금융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논문 수뿐만 아니라 학자의 범위도 중동에서 유럽으로 확대되었음.
- 2008년 이전에는 이론 중심의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나, 그 이후에는 실증분석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음.
- 또한 AAOIFI와 같은 이슬람 회계 및 감사 기구는 국제결제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슬람 은행 제도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음.
-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향후 중동의 이슬람 은행에 대한 제도 마련 및 발전과 시장의 확대 속도 또한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
□ (이충열 교수 코멘트) 현재 중동의 은행 및 금융 시장에 대한 분석과 기업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임.

-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중동 진출은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.

- 중동 금융시장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여 오늘 발표는 중동 전반에 대한 금융 시장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음.
- 향후 다양한 연구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며, 기업의 진출도 보다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.